

롯데자야 옛터

롯데자야는 조슈 번이 거느렸던 스오노쿠니와 나가토노쿠니(두 지역 모두 지금의 야마구치 현)를 여행하는 여행자들의 휴식처였습니다. 과거 롯데자야(六軒茶屋, 6채의 찻집이라는 뜻)에는 6채의 농가가 있었는데, 급경사 구간인 이타도 고개의 인근 수 킬로미터 이내에 집이 있던 지역은 이곳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곳의 농가 주민들이 여행자들에게 휴식의 장소와 가벼운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17세기 초, 조슈 번을 다스리던 모리 가문에 의해 일본해 연안의 모리 가문이 거주하던 하기 성에서 세토 내해 연안의 항구 도시인 미타지리를 연결하는 가도가 정비되었습니다. 하시오칸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이 가도는 수송과 거래에 사용되었으며, 조슈 번의 번주가 에도(지금의 도쿄)로 이동할 때 이용했던 도로였습니다. 1635년 이후, 조슈 번의 번주는 도쿠가와 막부에서 명한 산킨코타이 제도(각 번의 영주를 정기적으로 에도에 머물게 하는 제도)를 위해 격년으로 에도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번주는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고자 가신들을 거느리고 거대한 행렬을 이루며 하시오칸의 여정길에 올랐습니다.

롯데자야는 번주와 그의 종자들이 에도와 하기를 오갈 때 이용했던 지정 휴게소(‘가마 역참’)였습니다. 하기와 미타지리 사이에는 6개의 가마 역참이 있었는데, 각각 번주와 고위급 가신들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롯데자야 옛터에는 번주가 이용했던 곳을 일부 재건한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번주는 4~6명의 가마꾼이 메는 가마를 탔으며, 예비 가마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 정면에는 이 두 가마를 보관하기 위해 지붕을 올린 작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번주의 종자는 가신, 호위 무사, 하인까지 1,000여 명에 이르렀는데, 옷가지나 그 밖의 일반용품을 담은 수납함 등 무거운 짐을 다수 운반했습니다. 역사 문헌에 따르면 운반한 무거운 짐에는 바닥에 까는 이불 크기의 거대한 철판도 있었습니다. 이 철판은 번주가 사용하는 이불 밑에 깔아두어 취침 중에 마루바닥 아래에서 번주를 암살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사용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